

소설 주제 접근체계의 확장 연구

- 상징과 모티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nhancing Subject Access to Fiction Focused on Symbol and Motif

김 나 림(Na-Reum Kim)*, 김 태 수(Tae-Soo Kim)**

초 록

소설을 비롯한 문학작품에 대한 접근은 기술요소 중심이었고, 주제접근 역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소재, 인물명, 지명 등 형식 요소에 국한되어 왔다. 이러한 관행은 소설 주제의 본질을 놓친 것이며 미학적 경험을 추구하는 이용자의 주제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 연구에서는 소설 주제접근체계의 확장을 위해 상징 및 모티프의 개념과 주제 접근점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해당 용어사전을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상징과 모티프 체계를 구성하고, 20세기 한국소설에 적용해 이용성과 한계점을 논하였다.

ABSTRACT

The access to literary works, including fictions, has focused on descriptive elements, and the subject access has been confined to denotative elements such as the subject matter, name of character and geographical name, etc, which appear in the work. This practice will not lead to the essence of subject of fiction, and does not reflect the demand of users for the subject who pursue aesthetic experience. In this study, concepts of symbol and motif and their possibility to be used as subject access point are considered to enhance a subject access scheme. In addition, this study tries to build the scheme of symbol and motif by using the glossary as the source of information. The composed schemes are applied to 20th century Korean fictions and its usability and limits are discussed.

키워드: 소설 주제, 소설 주제접근, 주제 색인, 소설 주제명표, 상징, 모티프
subject of fiction, subject access to fiction, subject indexing,
fiction subject heading, symbol, motif

*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 석사과정 졸업(logiconfire@gmail.com)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btree@yonsei.ac.kr)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소설은 도서관의 장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소설에 대한 접근은 기술요소에만 치중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현행 분류체계를 통한 접근도 언어, 형식, 시대를 거쳐 결국은 저자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소설 주제접근의 선행시도 또한 형식요소 중심이었다. 이러한 상태로는 주제를 통해 소설을 찾기 원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소설의 주제는 전통적인 핵심정보의 개념과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소설의 주제를 찾아가는 독자의 독서행위는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미학적 경험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문학작품에 대한 주제접근은 주제개념에 대한 이해와 접근방식에 있어 비문학 저작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소설에 대한 주제접근은 비소설자료와 동일한 전제에 근거해서 제공되었다.

소설의 주제는 지시적 주제요소와 암시적 주제요소로 구성된다. 지시적 주제요소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제재, 인물명 등의 명시적 요소를 말한다. 이러한 주제요소는 관념적인 의미를 가진

제재를 제외하고는 개체개념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접근점으로 기능하고 독자의 주제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 반면 암시적 주제요소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아서 해석행위를 요구하지만 통일 원리인 테마를 강력하게 환기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작품 구조속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은 정신적 본질적 의미를 지닌 내용에 있다. 형식적인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소설은 현실의 사실을 묘사하는데 그치거나 또는 주장하는데 그 중요성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상징과 같은 암시적 주제요소는 미학적 경험을 원하는 소설 독자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주제 접근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암시적 주제요소로 상징과 모티프에 주목하였다. 상징과 모티프는 작품의 내부요소로 소설내용의 핵심인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미학적 도구이다.

어느 정도 문학적 지식을 갖춘 이용자가 검색 시스템에서 소설에 주제로 접근하는 이유는 특정 주제를 다룬 특정 저작을 찾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특정 주제를 다루는 작품들을 적정한 수만큼 찾아 연구목적에 이용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높다. 문학의 주제가 학술적 환경에서는 비교연구를 위해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때 한 주제 요소가 어떻게 형상화되어 왔는지, 혹은 당대의 어떤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지 통시

적, 공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주제접근의 대상이 자국의 문학 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문학도 포함한다면 동일 주제 요소가 각국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분석되는지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 즉 주제단위의 접근점을 제공하는 것은 특정 주제요소를 다룬 저작의 집단을 통해 시대적, 공간적인 비교 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종적, 횡적 주제단위로 저작들을 묶어줄 때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소설의 주제는 식별 요소라기보다는 작품들을 연결하고 묶는 역할, 다른 여러 텍스트를 잠재적으로 결합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작품의 식별은 주제보다는 기존의 기술요소와 더불어 다른 접근점, 소재나 장르에 국한되며, 때문에 주제와 관련된 독자의 탐색행위는 특정 주제를 다룬 특정 저작의 검색이 아니라 특정 주제요소를 다룬 다양한 저작을 찾는 것이 된다. 기존 목록에서 대상의 논의가 서지 단위에서 저작단위로 옮겨갔다면 문학작품의 주제검색과 관련해서는 주제단위로 묶인 저작들, 곧 주제단위가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주제단위의 표현이 소설 주제검색에 있어 결정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작품을 식별 기능을 위해서는 내용적 요소 중 소재와 장르를 접근점으로 내어주되 주제접근점으로 기능하는 주제단위는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관점으로 요소를 구조화해서 표현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구체적인 주제의 식별 및 도출보다는 상징과 모티프를 이용해 공시적, 통시적 관점에서 유용한 주제접근점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소설 주제의 성격

문학작품의 주제가 고정적이며 영원 불변한 진리를 가리킬 수 있다는 관념은 20세기 중반 이후 탈구조주의와 텍스트 기호학의 출현으로 사장되고 말았다. 탈구조주의와 텍스트 기호학의 내용은 기초적인 기호학적 개념에서 출발한다.

전통적인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지시어와 지시어가 가리키는 지시대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일대일 조응을 이루며 둘 사이에는 필연적 관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언어(지시어)에 앞서 선행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붙여진 이름으로서의 언어가 있다. 언어는 사물을 지칭하고 사물에 내재된 의미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 주는 거울이다. 즉 언어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주는 매체이다. 그러나 언어의 수가 한정되기 때문에 실제 언어는 대상과 일대일 관계에 있지 않다.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을 가리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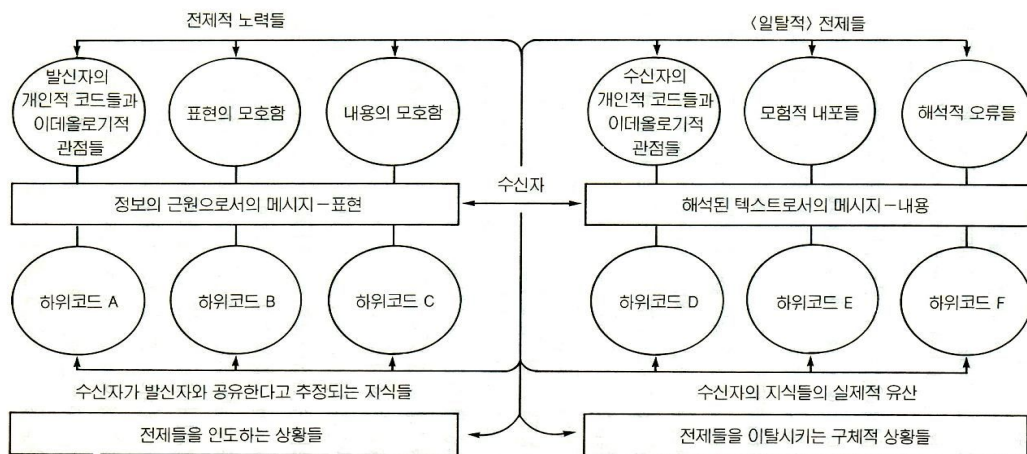
다의어의 예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시어와 지시대상의 관계가 임의적이며 의미는 본질적으로 불안한 성격을 띤다는 것이 탈구조주의자들의 발견이었다.

기호체계인 텍스트 역시 기호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만들어 낸다. 텍스트와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의 관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텍스트를 읽는 독자는 지시대상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텍스트의 의미형성 과정에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때 독자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저자와 독자의 내외부적 상황과 연관된 화용론적 요인들이다.

Eco는 텍스트를 통한 저자와 독자의 소통과정에서 화용론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초기 정보 이론가들이 제시한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화용론적 요인들을 배제하고 단순히 발신자, 메시지, 언어적 코드에 기초한 수신자의 정보습득으로 구성된 점을 비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언어적 코드만으로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담배 피웁니까?”, “아니오. 왜요?”라는 대화는 수신자의 습관에 대한 질문과 대답으로 해독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발신 상황에서 수신자의 이런 대답은 언어적 코드가 아니라 예절의 코드를 통해 해독될 경우 교양 없고 무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언어적 메시지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언어능력 이외에도 상황이나 전제와 같은 화용론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Eco는 저자와 독자 간 커뮤니케이션 양상에 화용론적 요인들을 도입해 <그림 1>로 제시하였다.

그림의 왼편에서 텍스트의 저자는 자



<그림 1> 독자의 독서행위

신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관점 및 개인적 코드에 기초해 내용을 전달한다. 이 때 저자는 전략에 따라 수신자가 될 모델 독자를 상정하고 그 독자와 공유한다고 여겨지는 배경지식(하위코드)을 취사선택하여 내용을 구성한다. 이와 같은 저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텍스트는 저자의 예상과 달리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이는 수신자인 독자의 상황 요소 때문이다. 독자만의 개인적 코드와 그가 취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텍스트의 해석에 영향을 주고, 뿐만 아니라 독자의 배경지식이 저자의 그것과 다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화용론적 요소와 함께 Eco는 텍스트의 표현의 층위를 의식하였다. 그는 텍스트는 '말해지지 않은 것'으로 짜여 있다고 본다. '말해지지 않은 것'이란 표현의 층위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암시적인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 문학 텍스트는 다른 메시지 이상으로 독자의 능동적, 의식적 협력을 요구한다 (Eco 1996).

Eco와 같은 텍스트 기호학자들의 관심이 문학예술텍스트, 특히 서사텍스트의 속성 및 해석에 집중되었던 것을 볼 때 이들의 연구 성과는 소설의 주제분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을 참고하여 소설 주

제의 성격을 다면성, 암시성, 중층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소설의 주제는 다면적이다. 상황, 곧 해당 작품이 읽히는 시대나 사회의 사상 및 분위기에 따라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와 형식 및 내용요소들은 다양한 관점의 주제로 연결된다. 간단한 예로, <춘향전>의 주제는 일반적으로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과 여인의 정절이다. 그러나 현대의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춘향전을 바라볼 때 그 주제로는 여인의 정절이 아니라 일부종사 이데올로기나 여성의 신분상승 등이 있을 수 있고,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 소설의 주제는 봉건제에 대한 대항일 수 있다. 이처럼 소설이라는 텍스트는 화용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소설의 주제 역시 당대, 혹은 후대의 화용론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된다.

소설 주제의 다면성은 소설을 분석대상으로 삼는 문예비평의 다양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학연구의 한 방법으로서의 비평은 페미니즘, 마르크시즘, 정신분석비평, 탈식민주의 등 여러 가지 접근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접근방식들은 당시의 철학과 심리학, 사회학과 같은 문학 인접 학문의 주류와 정신성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판을 받고 도태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문학작품을 비평하

는 영향력 있는 관점으로 기능한다. 이와 같은 비평관점의 다양성은 문학예술작품이 공시적인 관점에서 다수의 주제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소설의 주제는 암시적이다. 이는 문학작품의 주제 표현은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는 것이 독자의 흥미와 예술적인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소설의 주제가 암시적이라 함은 곧 소설의 주제가 텍스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구성과 문체, 시점, 배경 등 소설 텍스트에 나타나는 요소들은 주제를 암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런 요소들을 선별하고 종합하여 주제를 도출하는 것은 텍스트가 아닌 독자의 몫이다. 그러므로 주제는 텍스트가 아닌 독자의 해석행위에 의존한다. Eco는 문학예술작품의 의의를 정보의 전달보다는 미학적인 즐거움에 두고 ‘열린 예술작품’이란 용어를 통해서 텍스트의 해석이 사회적, 역사적 연관성에 따라 다양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미학적 경험의 수용자로서 독자의 해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텍스트는 수신자의 능동적인 해석적 협력에 의해서만 생명력을 얻으며, 비로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고유의 의미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Eco 1995). 따라서 소설 텍스트는 특수한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작품 안에는 다양한 잠재적 의미가 공존한다. 텍

스트 자체는 독자들에게 가능성의 장을 제공해 주지만 그러한 장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대부분 독자의 해석과 추론에 맡긴다.

셋째, 소설의 주제는 중층성을 띤다. 주제의 중층성은 소설 작품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작품에 나타나는 성격이다. 예술작품이 여러 층위의 주제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주제가 암시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제요소인 제재를 주제로 취급하는데서 비롯된다. 그래서 주제를 층위에 따라 나눌 때 제재와 같이 비교적 구체적인 개념을 ‘명시적 혹은 지시적 주제’로, 추상적이며 해석을 요구하는 개념을 ‘암시적 주제’로 범주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Hayes는 더 나아가 주제는 지시적, 상징적, 테마적 수준으로 나뉜다고 보았다(Hayes 1992).

결론적으로 소설 주제의 성격은 다면성, 암시성, 중층성이다. 소설의 주제는 다양한 공시적 관점을 통해 분석될 수 있으며, 암시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텍스트가 아닌 독자의 해석행위가 주제의 도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소설의 주제는 추상화의 정도에 따라 여러 차원으로 구분된다. 소설주제의 표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특성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3 선행연구

1.3.1 소설의 주제분류 시론

소설주제접근 연구의 이론적 출발점으로 소설 주제분석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주제분석에 필요한 범주와 구성요소를 제시한 연구가 있다(김태수 2000).

이 연구는 소설에 사용된 특정 개념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는 방법이 없고, 주제설정과정에서 야기되는 여러 난점에도 불구하고 주제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소설에 대한 서지적 접근기회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소설 주제표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소설의 테마를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학자들은 관련자료

에 대한 서지자료를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테마로 소설에 접근하고자 하는 독자들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소설 작품에 관한 새로운 참고문헌의 개발을 통해 소설에 대한 서지적 접근기회를 확장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대한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1.3.2 한국소설 주제색인 연구

소설 주제접근체계 구현을 시도한 한만성의 연구는 한국소설의 주제범주들 장르와 테마를 중심으로 하여 하위범주까지 제시하고 이 주제범주에 기초하여 한국소설 주제명표를 구성하였다

<표 1> 한국소설 주제범주표

주제범주	하위주제범주	비 고
장 르	형식 중심	단편소설, 대하소설, 풍자소설, 연재소설, 실험소설 등
	테마 및 소재 중심	본격소설과 대중소설로 나누어 적용
	인물 중심	예술가소설, 민중소설, 여성소설, 청소년소설 등
	시공간 배경 중심	전후소설, 도시소설, 전원소설, 해양소설, 학교소설 등
	작가의 의도 중심	참여소설, 반전소설, 계몽소설, 친일소설, 저항소설 등
테 마	종교 · 철학 · 사상	종교, 속죄, 악, 유물론, 이성, 부조리, 사회주의 등
	사회 · 정치 · 경제	국가, 군대, 법, 문명, 독재정치, 사회계층, 야만 등
	개인	자아, 자존심, 편견, 불안, 허무, 우울, 행복, 욕망 등
	인물 중심	직업명, 계층적 지위, 연령, 성별 등의 속성
	시공간 배경 중심	배경이 되는 장소나 지명, 역사적 배경, 자연배경 등
예비패킷		문예사조 서술기법 해당 작가가 소속했던 단체 동인지명 문학상 이름

(2001). 그 결과 완성된 주제접근체계를 이용해 한국소설의 색인에 대한 일부 지침을 제시하였다(표 1).

이 연구에서는 인물과 시공간 배경을 테마에 종속되는 개념으로 보고 테마패킷의 하위범주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소설에 대한 주제접근의 시도라는 점 외에 본 연구의 관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소설 주제의 접근점을 테마로까지 확장한 점이다. 이 주제범주표는 기존의 형식요소 이외에 내용요소이자 암시적 주제인 테마를 접근점에 포함시켜 하위범주 아래 할당된 고통, 운명, 역사, 자본주의, 개인주의 등 추상적인 개념어를 주제어로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테마 접근점을 내어주기 위해 색인작성자는 색인과정에서 작가가 재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고 재현한 내용에 대한 독자의 최종적 해석을 예측하여 색인어를 부여하게 된다.

둘째, 필요한 경우 예비패킷을 통해 문예사조나 서술기법, 동인지명 등의 색인어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소설에 대한 문학비평을 비롯한 제반 배경지식이 있는 독자들에게 이용 가능한 접근점을 의식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접근점을 기타패킷으로 설정하고 실제 구조화하지는 않았으므로 이용성

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주제분석 과정에서 참고 정보원으로서 문예비평과 문학사의 유용성을 고려하였다. 작품에 색인어를 부여할 때에 그 출처를 해당 작품에 대한 비평에서 찾는다는 것은 곧 색인작성자 및 독자가 처한 시대와 사회의 비평적 관점으로 주제를 분석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는 소설 주제에 대한 공시적 관점의 분석으로 그 시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메타 정보원으로서 비평서와 문학사적 자료를 이용할 때에 어떤 관점에서 작품을 다룬 것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모든 비평은 사상에 기초하며 나름의 관점을 통해 작품을 분석한다. 이때 특정 관점에 기초한 비평문헌을 색인어의 정보원으로 선정한다면 편향된 색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다른 관점에서 분석된 주제는 표현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소설장서를 찾는 이용자가 색인어의 정보원과 일치하는 관점을 가지지 않는다면 원하는 작품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용자의 탐색은 유연성에 기초한 불확실한 것이 된다.

결론적으로 기존 소설 주제접근체계는 장르를 제외하고는 지시적, 소재적 주제 요소에 집중하고 있어 형식요소가 아닌 내용요소로 소설에 접근하려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어렵다. 한편 암시적 주제인 테마를 주제접근점으로 수용한 연구도 주제의 분석 및 구조화 과정에서 여러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띤다.

2. 소설의 상징

2.1 상징의 기능과 특징

상징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사실들을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상징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와 혼동되기 쉬운 은유 및 알레고리(allegory)와의 개념적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불가시적인 것을 원관념, 가시적인 것을 보조관념이라고 할 때 은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A=B'의 형태로 나타나 있으며 의미전의에 의해서 B의 속성이 A의 속성으로 옮겨간다. 이에 반해 상징은 단지 보조관념만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은유적 표현의 경우 '내 마음'과 '호수'라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표면에 드러나 있으며 이 두 이질적 존재의 공통점을 추리함으로써 의미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 반면 '비둘기가 날아왔다'는 상징은 비둘기라는 보조관념만이

나타나 있고, 원관념은 숨어 있기 때문에 독자는 무한대의 원관념 중에서 문맥에 따라 보조관념이 환기하는 것을 찾아냈을 때 이 상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도 관습적으로 사용되어온 상징은 비교적 이해가 용이하지만 개인적인 특수한 경험에 의한 상징은 이해가 비교적 어렵게 된다. 가령 비둘기는 평화, 꽃은 여성을 상징하는 것은 이미 보편화된 것으로서 이런 상징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쉬운 것이다.

상징의 특징으로 송태현은 반복성을 들고 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이해의 범주를 넘는 것들이 무수히 존재하고 이렇게 완전히 정의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을 표상하기 위해 끊임없이 상징적인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원관념에 대한 상징들을 반복한다 해도 그 자체를 완벽하게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점근선적 접근만 가능할 뿐 결코 본래의 의미에 도달할 수는 없다. 이렇듯 상징은 유한으로서 무한을 표현하려고 하므로 그 성격상 불충분하고 따라서 끊임없는 반복을 요구한다(송태현 2005).

상징의 또 다른 특성은 다의성이다. 즉 모든 상징은 이중적 지시 의미를 갖는다. 상징은 다양한 가치를 지니며 때로는 상호 모순적인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 '불'의 상징을 예로 들면 불은 일반적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태

우는 정화의 의미를 지닌다. 성경에서 나타난 불은 신의 임재와 결부된다. 한편 최서해의 소설 <홍염>에 등장하는 불은 지주에게 착취를 당하는 소작농의 분노와 저항을 나타낸다. 이처럼 상징은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상징의 기능이 의미의 환기를 통해 문학작품의 주제를 강화하거나 부각시키는 데 있다고 할 때 상징은 시 뿐 아니라 소설에서도 중요한 주제요소라 할 수 있다. 소설에서의 상징은 사실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미학적 도구로 사용된다. 김경희는 소설에 나타나는 상징의 기능을 작품 줄거리 상 중요한 순간에 대한 강조와 작품 내 문맥 속에서 작품의 전체 분위기를 생생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김경희 1982). 상징을 통해 독자는 작품을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상징은 독자가 소설작품의 주제를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같은 상징의 기능을 생각할 때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배경, 사건의 이름 같은 개체개념이나 지시적, 소재적 주제요소만 제시하는 것보다는 소설의 테마를 강하게 암시하는 상징적 소재를 제시해주는 것이 독자 편에서 유용한 주제정보가 될 수 있다. 미학적 독서 경험을 위해 소설을 주제로 검색하려는 이용자는 막연한 추상적 주제어,

혹은 복합어로 구성된 주제어를 머릿속에서 구성하기 이전에 그 주제를 환기하는 상징어를 떠올리기가 쉽다. 이때 상징어의 원관념 체계를 주제접근점으로 내어주면 이용자는 직관을 통해 원하는 소설작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학술적 목적으로 소설을 찾는 이용자라면 특정한 주제나 원관념이 어떤 상징을 통해 형상화되었는지 알기 원할 때 원관념 체계를 접근점으로 원하게 될 것이다. 또는 특정 상징어가 작품 속에서 어떤 주제나 원관념을 암시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에는 보조관념어를 검색도구로 필요로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를 감안할 때 상징어를 소설 작품에 대한 주제접근점으로 고려할 수 있다.

2.2 소설 상징체계의 구성

상징체계는 주제어로 관습적 상징과 개인적 상징을 모두 포괄한다. 관습적 상징은 해당 사회와 문화의 함의를 통해 정착되므로 국내 문화상징사전과 민속학적 연구자료, 한국문학에 나타난 상징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였다. 이는 주제색인에 있어 문헌적 근거(literary warrant) 뿐 아니라 문화적 근거(cultural warrant)를 중요시하는 견해를 따른 것이다(Hjørland et. al. 1995 ; Beghtol 1989). 아래는

상징을 구성하는 보조관념과 원관념의 정보원이다.

- ① 구미래, <한국인의 상징세계>
- ② 이승훈, <문학상징사전>
- ③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 ④ Aziza, Olivieri, Scrick, <Dictionnaire des symboles et des thèmes littéraires>

먼저 위의 정보원에서 상징어로 쓰이는 보조관념과 해당 보조관념이 가질 수 있는 다수의 원관념을 추출하였다. 이후 실제 소설작품의 색인을 통해 새롭게 발견되는 보조관념이 있으면 이미 구성된 리스트에 추가하여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었다. <표 2>는 보조관념-원관념 리스트의 일부로 ‘계절’ 상징의 예이다.

보조관념-원관념 리스트에서 원관념은 아래 표에서 보듯 상반된 의미의 용어들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봄의 원관념 중 ‘풍요’와 ‘가난’은 반대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자는 관습적 상징으로서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합의되는 봄의 원관념이라면, 후자는 우리나라의 보릿고개나 춘궁기의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어야 납득되는 원관념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보조관념에 대응되는 원관념의 수가 복수이고, 그 의미의 스펙트럼도 다양하기 때문에 색인작성자는 색인대상 소설의 맥락에 따라 원관념을 적절히 선택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조관념-원관념 리스트에서 1656개의 원관념 용어들을 귀납적으로 분석해 이용자들에게 주제접근점으로 쓰일 원관념 체계를 구성하였다. 상징은 그 특성상 추상적 관념을 지시하므로 원관념의 경우 개념의 속성 파악이 쉽지 않고, 따라서 체계화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원칙에 근거해 원관념 체계를 구성하였다.

첫째, 원관념 체계의 전개는 추상적인 관념에서 구체적인 관념 순으로 이루어진다. 즉 일차 범주의 정의는 우주론과 같은 가장 형이상학적 관념에서

<표 2> 상징의 보조관념-원관념 리스트 예

보조관념	원 관 념
봄	시작, 부활, 풍요, 아름다움, 희망, 젊음, 허무, 슬픔, 가난
여름	무성, 번창, 성장, 열정, 권태, 한적
가을	풍요, 결실, 수확, 쇠락
겨울	죽음, 마침, 저장, 황량함, 정지, 수난, 암흑

부터 시작해 현실사회에 기초한 것으로 끝난다.

둘째, 재환원되는 은유는 사회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이상 주제어로 수용하지 않는다. 가령 ‘정월-봄’에서 정월의 원관념인 봄은 다시 봄의 원관념인 풍요나, 가난으로 그 의미가 전의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 정월의 원관념인 ‘봄’은 체계에서 제외한다. 반면 ‘곰-한민족’이나 ‘들판-조국’, ‘총-전쟁’ 등은 은유에 가까운 상징이지만 사회현실에 기초한 개념이므로 원관념 체계에 수용한다.

셋째, 세범주의 나열은 자모순이 아니라 의미 순으로. 주제어의 나열은 자모순을 기준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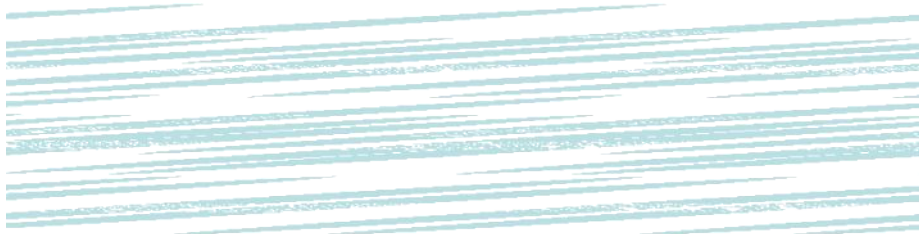
원관념 체계를 구성하는 최상위 범주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우주원리 범주는 우주의 생성원리와

구조, 진화에 대한 관념을 다루며, 제의적 관념은 농경사회에 기초한 기복신앙에 관련된 주제어들을 수용한다. 종교적 관념은 구원과 타락, 해탈 등 종교교리를, 정서 범주는 분위기와 일반 심리를 나타내는 용어를 포함한다. 한편 심층심리 범주는 일반 정서와 달리 한 개인의 내면을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파악한 개념들을 나타낸다. 의적속성 관념은 인물과 행위에 대한 성질을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현실에 기초한 관념은 사회현상 용어들을 수용한다.

이상과 같은 범주화를 통해서 주제어의 관점별 구조화가 가능해지고 이용자는 7개의 관점을 통해 소설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표 3>은 소설상징의 원관념 체계를 제시한 것으로 지면의 제약 상 세분류



<그림 2> 원관념 체계의 최상위 범주

<표 3> 소설 상징의 원관념 체계

대분류	중분류	비 고
우주원리	이원 원리	남성원리-여성원리, 합일-분리, 선-악
	만물발전원리	생성, 발전, 쇠퇴, 소멸, 전환 등
	소우주 원리	인간정신, 인간의지, 생명 등
제의적 관념	다산기원	결실, 생산, 수태, 풍요, 다산, 번영 등
	농경신	지모신, 여성원리, 태양신 등
	지복	부, 장수, 입신출세 등
	주술무속	길상, 불길, 벽사, 축귀 등
종교적 관념	일반개념	죄, 죽음, 재생, 초월, 신성 등
	불교적 관념	업보, 윤회, 탈속, 해탈, 화엄 등
	기독교적 관념	창조, 타락, 지옥, 희생, 순교 등
	기타	여신, 신선, 정령, 수호신, 호국신 등
정 서	긍정적 정서	동태적 정서(환희, 신명, 한풀이 등)
		정태적 정서(갈망, 동경, 그리움 등)
	부정적 정서	동태적 정서(걱정, 분노, 살의, 질투 등) 정태적 정서(권태, 두려움, 우울, 한 등)
심층심리	자아와 정체성	자아성찰, 자아분열, 정체성 등
	의식과 무의식	콤플렉스, 집단무의식, 아니마, 아니무스
	충동·본능	삶에의 충동, 죽음에의 충동, 성충동 등
	방어기제	동일시, 전이, 부정, 망각, 억압 등
	정신병리적 증후	착란, 퇴행, 히스테리, 정신분열
외적속성관념	긍정적 속성	일반속성(아름다움, 초연, 토속성 등)
		인물속성(보호자, 재주꾼, 조력자 등)
		행위속성(노력, 도움, 자선 등)
	부정적 속성	일반속성(삭막, 더러움, 퇴폐 등)
		인물속성(폭군, 소인배, 속물 등) 행위속성(일탈, 자살, 매음 등)
현실에 바탕한 관념	일반	생계, 가난, 구난, 개간, 이주 등
	사회계층	지배계층, 소시민, 서민, 소작인 등
	사회문제	계층갈등, 이념갈등, 일탈, 소외 등
	현실인식 및 대응	개혁, 계몽, 저항, 혁명, 순응 등
	문명	현대문명, 기계문명 등
	민족	민족성, 민족정신, 민족수난, 민족해방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급진주의, 자본주의 등
기타	국가산업, 일제, 조국 등	

이하 전개는 비교란에 일부만 수록하였다.

2.3 소설 상징의 색인

소설의 상징 색인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째, 소설에서 주제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상징을 찾아내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 상징은 소설 속 도처에서 발견될 수 있다. 상징의 범위는 넓고 각기 다른 양상으로 작품 속에 나타난다. 무엇보다 상징 그 자체가 작품 속에 숨겨져 주제를 암시하는데 존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독서가 필요하다.

소설작품 내에서 어떤 부분이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단서는 사실적인 중요성이나 구성상의 과정에서 가지는 의미가 아닌 다른 이유에서 눈에 띄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특정 문장이나 단어가 반복되거나 문맥이 비슷하게 전개될 때 상징일 가능성이 있다. 문맥이 반복되거나 또 서로 공통점이 있고, 특히 배경과 관계가 있는지 살핀다. 다음으로는 상징이 등장한 문맥을 작품의 내용에서 비교하는 것이다(김경희 1982).

상징어의 추출을 위해서는 내용상에서 반복되는 부분 뿐 아니라 소설의 제목도 살필 필요가 있다. 소설의 제목은 작가가 나타내려는 주제의 내용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서해의 <홍염>에서 홍염은 주인공의 내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도의 부조리한 현실세계를 파괴하고 형성된 새 질서를 상징한다.

내용 전체를 읽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소설의 제목 이외에 비평자료를 색인어의 정보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소설작품의 해제나 비평서, 연구논문에는 작품의 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요한 주제요소인 상징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상징을 발견한 후에는 분석, 곧 그 발견된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는 색인작자가 앞에서 찾아낸 상징의 보조관념에 적합한 원관념을 선정하는 것이다. 상징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징이 반복될 때 이것이 줄거리의 핵심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야 한다. 소설을 읽으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징어가 소설의 각 부분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의식하면서 읽을 때 테마를 두드러지게 하는 해당 상징어의 원관념이 파악될 것이다. 이 때 하나의 보조관념에 대응되는 가능한 원관념들을 나열한 ‘보조관념-원관념’ 리스트는 색인자의 주제분석과정에 보조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상징어의 색인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상징어의 발견과 분석을 위해서 색

인작성자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문학적 배경과 지식이 요구된다. 색인작자 본인의 독서행위에 의한 색인이든, 2차 자료에 의한 색인이든 소설색인은 근본적으로 소설이 읽히는 사회의 관습과 관점을 반영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색인작성자의 분석 작업이 주제색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을 유념해야 한다.

최서해의 <홍염>의 상징 색인을 예로 들어본다. 작품을 읽으며 눈에 띄는 상징은 간도의 혹독한 겨울 추위와 이에 대비되는 불의 이미지이다. 색인작성자는 ‘겨울’ 보조관념의 원관념을 찾기 위해 ‘보조관념-원관념’ 리스트를 검색한다.

겨울-죽음 마침 저장 황량함 정지 수난 암흑

이 작품에서 ‘겨울’은 간도 이주민의 신산한 삶을 상징하므로 위의 리스트에서 ‘수난’ 원관념을 선정한다.

다음으로 ‘불’의 원관념 리스트를 검색한다.

불- 열정 정화 재생 분노 저항

작품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불은 어려움의 극한에 치달은 문서방의 분노와 저항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관념으로 ‘분노’, ‘저항’을 선택한다.

결과적으로 <홍염>의 주제는 수난-겨울, 불- 분노, 저항으로 색인된다.

다음으로 이상의 <날개>를 예로 들어보자. <날개>는 매춘으로 돈을 버는 아내에게 예속되어 있는 무기력한 지식인의 자의식과 내면상태를 묘사한 작품으로 주제를 명확히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심리주의 소설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상징은 아내의 부채시 주인공이 소일거리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 거울과 마지막 장면의 날개이다. 거울과 날개의 원관념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거울- 경계 파탄 이상향 자아도취 자아성찰 날개- 탈속 신성 승화 상승 초월의지

위의 원관념 중에서 자아성찰과 초월의지를 선정한다.

3. 소설 속의 모티프

3.1 모티프의 기능과 특징

어원상으로 모티프는 창작이나 표현의 기본적인 동기를 의미하지만 문학에 국한해서는 텍스트 속에서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는 동일한 요소로서의 사건, 공식 등의 한 형태와 유사한 낱말, 문구, 내용을 말한다. 모티프는 한 작품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한 작가 또는 한 시대, 또는 한 장르에서 생길 수도 있다. 한 작품 속에서도 계속 반

복되어 느껴질 정도가 되는 모든 요소는 모티프라고 할 수 있다(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또한 모티프는 작품에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단위의 주제로 정의되기도 한다. 정리하면 모티프는 반복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작품의 주제를 이루어내고 통일감을 주는 주요 단위로 볼 수 있다.

모티프를 이해하는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는 소재와 구별하는 것이다. 모티프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물이나 사건의 성격을 가지는 소재와는 달리 애증, 복수, 한탄, 연민, 민족애 등과 같이 추상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또는 소재만큼 구체적일 경우에는 문학의 관습에서 오래도록 반복되어 온 소재의 성격을 띤다. 부친살해나 변신 모티프는 전자에 속하고 신데렐라의 신발 모티프는 후자의 경우이다.

소설에서 모티프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모티프는 작품을 구성하는 단편적인 요소에 불과해 보이지만 주제(테마)와 혼동되고 있을 만큼 주제관여도가 높기 때문에 문학주제론의 핵심을 이룬다. 모티프는 작품 내에서 '주제의 조직'과 '텍스트 구성'의 기능을 담당한다(Daemrich 1987). 즉 모티프는 텍스트의 주제적 구성을 지원, 강조, 해명하며 개념적·추상적 정보를 가공하고 변형하는 관계망을 형성한다.

또한 이야기의 맥을 연결시키고 사건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 텍스트의 구조를 견고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진정한 문학주제가 정의되려면 의미의 다양한 차원에 놓여 있는 모티프들의 주제적 잠재력이 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Vanhelleputte 1993).

둘째, 원형상징은 모티프에 속하는 것으로 비평, 특히 신화비평(원형비평)에서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프라이는 역사적 시간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원형적 주제로서 신화에 주목하였고 이것이 후에 문학에 합류하여 문학의 구조적 원리를 이루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인류의 무의식 속에 잠재하는 신화적 모티프가 문학작품에서 끊임없이 재현되는 것이다. 융도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심리적 원형들이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예컨대 <햄릿>의 주인공의 내면을 신화적인 이야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연관 지어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러한 모티프는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나 공통적으로 발견되며 따라서 통시적인 주제어로 쓰일 수 있다.

모티프는 주제를 명료하게 드러내주는 한편 주제의 전개에 일조한다. 예를 들어 이범선의 단편 <오발탄>에 나오는 '가자!' 모티프는 작품의 주제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는 정신이상자가

되어버린 주인공의 어머니의 처절한 절규로,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월남인들의 현실을 극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는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떠나야 하는 비극적인 것임을 부각시키는 작가의 목소리이다.

신화적 모티프의 예로 이광수의 <무정>에서는 주인공 박영채를 통해 희생양 모티프와 재생의 모티프가 나타나고 있다. 박영채의 아버지 박진사와 그의 아들은 개화기의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사재를 털어 교육 사업을 벌이지만 이것이 화근이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마지막에는 몰락에 이른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박영채는 고난 끝에 기생이 되고 만다. 조직을 위해 순진무구한 어린양이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는 모티프로써 박진사와 그 아들은 시대의 희생양이라 볼 수 있고, 박영채가 기생이 되어 악한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것은 민족의 순결이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희생양 모티프이다. 후에 박영채는 병옥을 통해 정체성을 찾고 함께 일본 유학을 가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 이는 재생 모티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희생양과 재생 모티프는 작품을 이끌어가는 기본 동력으로 작용한다.

3.2 소설의 모티프 체계구성

다음은 모티프 주제어의 수집에 이용

한 정보원이다.

- ① Frenzel, Elisabeth, <Motive der Weltliteratur>
- ② Daemmrich, Horst S., Ingrid, <Themen und Motive in the Literatur>
- ③ Seigneuret, Jean-Charles, <Dictionary of Literary Themes and Motifs>
- ④ Tompson, Stith, <Motif-index of Folk Literature>

위의 정보원과 이재선의 <한국문학 주제론> 및 주제학 관련 연구를 참고하여 국내소설의 모티프 체계를 구성하였다.

소설 주제접근을 위한 모티프 체계의 구성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모티프 범주화는 기존의 모티프 용어사전이나 색인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대표적인 모티프 색인인 <Motif-index of Folk Literature>는 소설의 서사체를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모티프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민담, 전설, 신화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범주가 무려 23개나 되므로 색인작성자의 편에서는 소설을 읽으며 파악된 모티프를 분류표에서 찾기 위해서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용자 역시 이렇게 많은 범주로는

검색 시 도움을 받기 어렵다. 즉, 기존의 색인집은 민속문학의 검색을 위해서는 적절할 수 있어도 소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모티프로 주로 쓰이는 용어들을 수록하고 있어 정보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다.

그러나 소설은 매우 복잡한 서사체이다. 소설에서 발견되는 모티프는 전통 민속문학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서사체에서 변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의 주제별 범주체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소설에서 쓰이는 모티프의 분류는 독서의 흐름을 반영해야 하고 따라서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소설 서사체의 구성요소인 인물, 행위, 상황, 의식, 관념 등으로 범주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모티프 색인에 관한 원칙이다. 기존의 모티프 색인은 민속문학의 서사체를 자세하게 구분하여 4만개의 기입어로 지나치게 방대하였고 소설에서 쓰이지 않는 색인어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설에서 주로 쓰이는 모티프를 선정하여 재범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또한 기존의 모티프 사전과 색인은 지나치게 서양 중심으로 국내 소설의 모티프 주제어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선별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이를테면 ‘떠도는 네덜란드 유령선’과 같은 모티프는 한국문화에서는 나타나지도 않거니와 대응되는 모티프도 없다. 그러므로 동양과 서양에

서 공히 나타나는 모티프를 수록하였고 서양고전에서만 나타나지만 국내 현대 소설, 특히 관념소설,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모티프는 수용하였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모티프나 성경, 전통 고전의 모티프가 그 예다. 이름은 다르지만 대응되는 모티프가 있는 경우에는 기입어를 바꾸어 수용하였다.

셋째, 색인과 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체계의 구체성을 일정 수준 이상 심화하지 않았다. 모티프의 변용과 그 양상을 자세하게 추적하는 일은 사서가 아닌 비평가와 독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용자에게 흥미있는 주제단위 접근점을 제공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다섯째, 각 모티프의 주기는 모티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나 필요한 경우 ‘신분상승[콩쥐팍쥐, 심청전]’과 같이 대표적 예가 되는 원형적 작품명을 넣었다.

이상의 원칙으로 <표 4>의 모티프 체계를 구성하였다. 이 역시 지면의 제약 상 세분류 이하의 전개는 비고란에 약술하였다.

3.3 소설 모티프의 색인

소설의 모티프 색인은 줄거리를 정보원으로 이용한다. 모티프 체계의 범주

<표 4> 소설의 모티프 체계

대분류	중분류	비 고
등장인물	신적존재	천상의 신, 하계의 신, 지상의 신, 반신반인 등
	영웅·반영웅	고난받는 영웅, 저항하는 영웅 등
	마법적 존재	유령, 괴물, 악마, 요정 등
	종교적 존재	성녀, 순교자, 성자, 은둔자, 희생양, 무신론자 등
	동물	신화적 동물, 인격적 동물 등
	불구	반쪽이, 외팔이 등
	바보	가짜바보, 당하는 바보, 똑똑한 바보 등
	선인과 악인	숨겨주는 자, 친절한 주인, 게으른 자 등
	포로	악의적인 존재에 의해 갇힌 인물형
	여성	요부, 마녀, 처녀영웅, 여장부 등
	가족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오누이, 계모 등
	사회적 인간	사제, 친구, 주인과 종 등
	반동적 인물	반역자, 의적 등
행위	조력자	동물 조력자, 인간 조력자, 초자연적 조력자 등
	감금과 탈출	탈출, 구출, 가출 등
	기만	대상기만, 양상에 따른 기만 등
	동종주술	원인은 그와 비슷한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방주술
	보복	보복살해, 계산된 보복 등
	살해	가족살해, 유아살해, 대학살 등
	선택	강요된 선택, 자명한 선택 등
상황	여행	천상계 여행, 지하계 여행, 귀향, 방랑, 산책 등
	금기	말하기 금기, 보기 금기, 음식 금기 등
	변신	이성으로의 변형, 초월적 존재로의 변형 등
	보상과 처벌	운명의 역전, 전략 등
	삶의 속성	연속된 고난, 수수께끼, 기타
	시험	결혼 시험, 용기 시험, 유죄·무죄 시험
	우연과 운명	행운(보물의 발견, 엇들음 등), 불운(무지에 의한 살인 등), 만남 등
	운명의 결정	거래를 통한 결정, 신의 결정, 예언을 통한 결정
	유머	익숙한 세계를 왜곡하거나 괴상하게 만듦
재앙	대참사, 대홍수, 대지진 등	
관념	죽음과 재생	재생방법, 재생주체, 재생목적에 따라 분류
	창조	빛의 창조, 우주 창조, 천체 창조 등
	타락	원죄, 추방 등
	속죄와 구원	희생양 등
	말세	불심판, 자연법칙의 붕괴 등
관계	낙원	천상낙원, 지상낙원, 실낙원 등
	가족관계	가족갈등, 가족찾기, 아버지의 부재 등
	결혼	혼사장애 등
관계	사랑	삼각관계, 기만, 버림받은 연인 등

에 따라 등장인물이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 어떠한 갈등 과정을 겪는지 그 내용을 따라가는 가운데 순서적으로 모티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티프 체계의 범주를 엄두에 두고 줄거리에서 인물, 핵심사건, 행위 및 갈등 요소를 추출한 뒤에 이를 현실세계 내 행동이나 서사적 전통과 연관 지어 해석한다. 현실세계 내 행동을 유념해야 하는 이유는 소설의 서사가 현실세계의 창조적 모방이기 때문이다. 즉, 현실세계의 반복적 요소는 서사의 전제이므로 색인작성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의미와 상징, 시간성을 해석해야 한다.

전상국의 <아베의 가족>의 모티프를 색인해 보자. <아베의 가족>에서 등장인물인 아베는 한국전쟁 때에 어머니가 미군에게 강간당해 낳은 주인공의 의붓형으로 정신지체장애자이다. 어머니를 제외한 가족들은 전쟁의 상처를 떠올리는 그를 모든 불행의 원흉으로 여기고 미워하는데 꿈의 땅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 혼혈아인 그를 이용한다. 그런데 정작 미국 시민권을 얻은 후 가족들은 아베를 데리고 가길 원치 않는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데리고 외할머니의 묘소로 가서 홀로 돌아온다. 재미교포가 된 주인공은 장성하여 의붓형의 행방을 찾으려 한국에 돌아왔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상의 줄거리에서

모든 갈등의 중심축인 인물 지체장애인 아베에 초점을 맞출 때 ‘불구’ 모티프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그가 태어나게 된 경위를 통해 ‘강간’ 모티프를, 그리고 작품의 말미에서 어머니에게 버림받게 된 사건을 통해 ‘버려진 아이’ 모티프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베의 출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의 가족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전쟁의 상처를 ‘전쟁’ 모티프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모티프는 극적 긴장감을 주고 작품의 서사를 지탱하는 인상적인 주제요소이자 접근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결론

소설 주제접근도구로서 상징과 모티프 체계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징체계의 경우 관점별 주제 접근을 가능케 한다. 원관념 상징체계의 7가지 최상위 범주는 상징을 해석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정서’, ‘심층심리’, ‘현실에 바탕한 관념’ 범주는 소설 주제의 심리학적, 사회학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징의 보조관념-원관념 리스트는 주제분석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리스트는 하나의 보조관념에 대응하는 다수의 가능성 있는 원관념 통

제어회를 제시하기 때문에 색인작성자는 주제의 분석 과정에서 이를 보조도구로 이용하여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형이상학적 소설의 경우 주제의 일반적인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는 유용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모티프의 경우 서사성을 띤 모든 예술작품에 대한 주제접근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 <킹콩>, 동화 <미녀와 야수>, 소설 <병어리 삼룡이>는 매체도, 원작도 각기 다르지만 이 세 작품을 관통하는 모티프 '미녀와 야수'로 묶인다. 이와 같이 모티프를 통해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 대한 접근과 흥미로운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넷째, 상징과 모티프는 테마보다 덜 구조화된 주제요소로 논의의 출발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모티프는 작가가 선택한 최소단위로 독자의 향해는 모티프를 찾아 해석이 이루어지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이 해석의 과정은 열려져 있을 뿐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작가나 독자 모두 해석에 대한 지평의 확대가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는 실험적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 및 연구 과제를 지닌다.

첫째, 상징 해석에 있어 환원적 입장을 취하였다. 보조관념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다수의 원관념을 열거하고 이 중에서 적합한 원관념을 선택하도록

것은 상징의 풍성한 원관념의 의미를 단순화, 고정화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징적 대응을 일대일이 아닌 일대 다로 하였고 원관념의 복수선택을 허용하여 최대한 해석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둘째, 용어의 표현단계에서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모티프는 시공간을 넘어 반복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을 가리키는 동서양의 많은 용어가 있어, 대표용어의 선정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모티프의 예시로 대표적 작품명을 넣을 것인가 혹은 원형 작품명을 넣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상징과 모티프 체계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방대한 상징의 원관념과 모티프 주제어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지면의 제약이 있으므로 이들 주제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범주의 설정에 주력하였다. 제시한 주제명표의 망라성에 한계가 있음은 이 때문임을 밝힌다. 가능한 주제어를 최대한 수용하고 정교화하는 방대한 작업이 앞으로의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희. 1982. 현대소설에 나타난 상징
성고찰. 『국어국문학』, 88: 31-51.
- 김태수. 2000. 소설의 주제분류시론.
『지식처리연구』. 서울:문헌정보
처리연구회 1(1): 1-17.
- 송태현. 2005. 『이미지와 상징』. 서울:
라이트 하우스.
- 이재선. 1989. 『한국문학주제론』. 서울:
서강대학교.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6. 『문학비평용
어사』. 서울: 국학자료원.
- 한만성. 2000. 『한국소설 주제색인 연
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
학원. 문헌정보학과.
- Beghtol, Clare. 1989. "Access to Fict-
on: A Problem in Classification
Theory and Practice. Part I".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1
6): 134-140.
- Daemmrich, Horst S., Ingrid. 1987.
*Themen und Motive in der
Literatur*. Frank Verlag,
Tubingen.
- Eco, Umberto. 1996. *The Role of the
Reader: Explorations in the S-
emiotics of Texts*. 김운찬 역.
서울: 열린책들.
- Eco, Umberto. 1995. *The Open Work*.
조형준 역. 서울: 새물결.
- Hayes, Susan. 1992. "Enhanced Catal-
og Access to Fiction: A Preli-
minary Study." *Library Reso-
urces & technical services*, 36:
441-60.
- Hjørland, Birger., Albrechtsen, Hanne.
1995. "Toward a New Horizon
in Information Science: Domain
Analysis." *Journal of the Ame-
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6(6): 400-425.
- Vanhelleputte, M. 1993. *The Concept
of Motif in Literature: A termi-
nological Study*. Harvard Uni-
versity Press.